

문서번호 : 리테일마케팅본부-2024-59

2024.06.07

참 조 : 상품기획 관련 담당 부서장

제 목 :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및 처분 공시

-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당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및 처분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대상펀드명:
- 하나아시아리츠부동산투자신탁[재간접]

나. 내역:

종목명	매매일자	매매구분	매매수량	단가	매매금액	자산총액	통화
			(주,좌)	(현지통화)	(백만원)	비중	
JAPAN REAL ESTATE INVESTMENT	2024-06-04	취득	9	514552	40.83	0.70%	JPY

다. 근거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9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6호 나

자본시장법

제89조(수시공시)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**대통령령**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 <2009. 2. 3., 2011. 8. 4.>

시행령

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"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**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<개정 2009. 2. 3., 2010. 6. 11., 2015. 10. 23., 2017. 5. 8.>

6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
나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끝

하나자산운용(주)
대표이사 김태우



수신처: DB금융투자, KB증권, NH투자증권, SC제일은행, 광주은행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증권, 삼성증권, 신한투자증권, 우리은행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국포스증권, 현대차증권

문서번호 : 리테일마케팅본부-2024-58

2024.06.07

참 조 : 상품기획 관련 담당 부서장

제 목 :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및 처분 공시

- 귀 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- 당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 및 처분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대상펀드명:
- 하나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[재간접형]

나. 내역:

종목명	매매일자	매매구분	매매수량	단가	매매금액	자산총액	통화
			(주,좌)	(현지통화)	(백만원)	비중	
JAPAN REAL ESTATE INVESTMENT	2024-06-04	취득	31	514,552	140.65	0.20%	JPY

* 상기 매매내역은 하나글로벌리츠부동산투자신탁[재간접형] 펀드의 매매 내역임.

다. 근거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9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6호 나

자본시장법

제89조(수시공시) ①투자신탁이나 투자지역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. <2009. 2. 3., 2011. 8. 4.>

시행령

③ 법 제89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<개정 2009. 2. 3., 2010. 6. 11., 2015. 10. 23., 2017. 5. 8.>

6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
나.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끝

하나자산운용(주)
대표이사 김태우



수신처: DB금융투자, IBK투자증권, KB증권, NH농협은행, NH투자증권, SK증권, 광주은행, 교보생명보험, 교보증권,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증권, 부국증권, 수협은행, 신영증권, 신한은행, 신한투자증권, 아이엠뱅크(구.대구은행), 우리은행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국포스증권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증권